

우린 모두 폴에게 달려갔네. 라 투르 부인이 말했어.

“내 아들이야, 네가 우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니?”

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을 되뇌었지.

“내 아들

.....

내 아들

.....

당신이 내 어머니가요.”

하고 그가 말하길,

“그러면서 당신은 오빠와 동생을 떼어놓는 사람이죠! 우리 둘 다 당신 젖을 물고 자랐습니다. 또 우리 둘 다 당신의 무릎 위에서 컸고, 당신으로부터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.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에게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주었어요. 그런데 이제 당신은 나를 비르지니한테서 떼어놓으시는군요! 당신은 비르지니를 유럽으로, 당신에게 쉴 자리 하나 허락해주지 않았던 그 야만스러운 나라로, 심지어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그 잔인한 친척들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. 당신은 말하겠죠. 넌 이제 비르지니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, 갠 너의 동생이 아니야. 비르지니는 내 전부예요, 나의 보물이자 나의 가족이며, 나의 시작이자 나의 재산입니다. 그것 말고 다른 건 아무 것도 몰라요. 우리는 한 지붕 밑에 살았고, 한 요람 안에서 자랐지요. 그러니 무덤도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. 비르지니